

17장 제물과 음식에 관한 규례

거룩함에 대한 규례 (17-22장)

11-16장에서는 부정한 상태와 정결한 상태를 구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부정함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지를 말하였다. 특히 16장에서는 속죄일의 규례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법을 가르쳤다. 11-16장은 정결케 되는 예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결 법전’이라고 부른다.

17-22장은 정결케 된 백성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친다. 22장 마지막 부분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22:32-33)는 구절로 마무리가 된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이다.

성결 법전에서 다루는 주제도 정결 법전과 같이 ‘먹는 것’과 ‘성’에 대한 것이다. 먹는 것과 성과 거룩함에 관하여서 대차구조적으로 가르친다.¹⁾

17장. 짐승을 잡아서 먹는 문제

18장. 불법적인 성적 범죄들

19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

20장. 가정과 성에 대한 규례

21-22장. 제사장과 거룩한 음식

성결 법전에서는 음식과 생육의 배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 머리말 (17:1-2)

성결 법전에 대한 첫 구절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 명령은 17장의 서론일 뿐 아니라 성결 법전 전체의 서론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전할 의무를 짊어졌다.

17장에서는 제사로 드린 고기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경우를 다루는데, 두 경우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강조된다.

2. 제사로 드린 짐승을 먹을 경우 (17:3-12)

1)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 (17:3-6)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배성은 소, 양, 염소를 회막에서만 잡도록 하였다. 자기들끼리 회막에서 짐승을 잡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성막에 가져와서 화목제로 드린 후에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하였다. 예물로 드리지 않은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짐승을 가져와야 했던 것은 아니지만(참조 신 12:20-22)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성소에 와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 먹게 하였다.

2) 숫염소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심 (17:7-9)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회막에서만 짐승을 잡도록 엄격히 규정한 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동물을 잡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고 하셨다(17:7). ‘숫염소’(사이르)는 염소의 형상을 취한 마귀(사티로스)를 가리킬 수도 있다. 여호와의 진 안에 거하면서도 동물을 잡아 ‘사티로스’와 같은 우상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막에 나와서 짐승을 잡게 하였다.

1) 이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기찬, 『레위기 공부』를 참조하시오.

3)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 (17:10-12)

하나님께서서는 동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생명을 나타내셨다. 생물이 피를 흘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들어서 피로 생명을 상징하게 하셨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으로써 대속을 가르쳐 주셨다(창 9:3; 레 19:26; 신 12:23-25; 겔 33:25).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음식물에 관한 규정도 아니며 속죄 제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단에 뿌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피를 그러한 용도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피를 먹지 않아야 하였다.

3. 사냥한 짐승을 먹을 경우 (17:13-16)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은 경우는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은 후에 먹을 수 있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사냥한 짐승의 피도 마시지 않아야 하였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참조 신 12:15-16, 22-25).

들에서 찢겨 죽은 동물이 있는데,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옷과 몸을 물로 정결케 해야 하였다. 그렇지 않는 자는 죄를 담당하게 된다.

묵상과 실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

1.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살던 외국인이 번제나 다른 희생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회막에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피에 관한 규례를 제사장이 잘 감독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진의 외곽에 거하던 타국인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였고 이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었다(레 17:4, 9, 10, 12, 14). 다섯 차례나 그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보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더 강하게 하려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피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히 9:22).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고, 성자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53) 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 참된 고기와 살을 주시려고 구약에서는 피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언약을 맺으신 후에는 이 규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그분의 영생에 참여한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데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17장 익힘 문제

1. 1)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하였습니까? (3-5절)
 2)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 이 명령은 무엇을 금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까? (7절)
- 2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무엇을 음란하게 섬기고 제사하였습니까? (7절)
3. 1) 이스라엘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입니까? (11, 14절)
 2) 이 규례를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4, 9절)
- 4 스스로 죽은 것이나 뜯김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한 후에야 정결하게 됩니까? (15절)